

「青銅器時代の 農耕과 社會」 토론요지문

김민구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사회」는 선사농경과 관련한 개념 및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가 돋보이는 논문이다. 발표자는 농경과 관련한 전문 용어뿐 아니라, 농경 발생과 관련한 이론, 집약적 농경의 특성, 청동기시대 전·후기 농경 양상의 특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가 밝힌 대로 청동기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양화되었지만 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아직 제한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동의하며, 본 논문은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관련한 향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로 인해서 모든 개념이 다 명쾌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들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농경과 관련한 용어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농경관련 용어를 작물 그 자체에 관한 것과 작물 생산 활동에 관한 것으로 양분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구분을 통하여 전자에 속하는 “작물,” “순화,” 또는 “작물화”와 같은 개념은 비교적 쉽게 정의된다. 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개념들은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발표자는 경작(cultivation)은 “식물의 성장환경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경제적·문화적 행위”로 보았고, 농경(agriculture)은 “작물생산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두 개념을 정의하는 보다 뚜렷한 기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농경의 집약화와 관련한 소위 “하향식”과 “상향식” 모델에 관한 부분이다. 본 토론자는 이 두 개의 전략은 사회진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반드시 양자택일(alternative)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상향식 전략은 “엘리트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조직화하고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엘리트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은 농경 집약화의 초기 단계에서도 가능한 전략이다. 반면 하향식 전략은 엘리트 집단의 존재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으로 하며, 엘리트들이 “농경 자본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서 권력을 행

사하거나 생산물의 재분배”를 행한다. 이때의 엘리트는 개별 마을에 거주하는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주거지 분류상으로 보아 이른바 상위 마을에 존재하며 여러 하위 마을에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소위 하향식 모델은 사회 분화가 진전되고 상위 집단이 뚜렷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출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 분화가 진전된 상태라면 하향식과 상향식이 양자택일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는 상향식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자 역시 청동기시대 전기의 사회를 상향식 모델로, 후기의 사회를 하향식 모델로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이 앞에서 언급한 사회 분화 정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한 마지막 질문은 청동기시대의 잉여생산물에 관한 것이다. 고고학에서 잉여생산물의 존재는 주거지의 규모나 위세품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성격이 강하다. 본 토론자는 잉여생산물 그 자체는 어떤 사회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대지방의 수렵채집사회는 식량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동절기를 보내기 위해 가을에 채집한 식료를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예상량 이상을 확보하려 노력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절기가 끝날 때까지 소비되지 않은 분량은 소위 ‘잉여생산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때의 잉여생산물은 고고학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송국리 문화 단계에서 잉여생산물의 존재가 유물과 유구를 통해 보다 뚜렷해지는 이유는 농경을 통하여 그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동시에’ 잉여생산물에 대한 권력층의 배타적 독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청동기시대 전기에 잉여생산물의 축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층에 의한 전용이 심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잉여생산물이란 그 양 뿐 아니라 이용 방식에 따라서도 고고학적인 가시화, 비가시화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농경작의 빈도가 높아지고 밭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로의 설치 등으로 보아 적극적인 농경작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형이며 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잉여곡물이 생산된 것으로 보았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농경지의 규모, 입지, 농경 기술 등 작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 후기의 농업생산성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후기 송국리문화 단계에서 잉여생산물의 존재가 뚜렷해지는 것이 엘리트층에 의한 그 전용 방식에 기인하여 한층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다.